

부모양육태도 불일치 연구동향과 측정도구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최진*, 권호장

¹단국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과정, ²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Research Trends and Reliability and Feasibility Analysis of Measurement Tool

Jin Choi^{1*}, Ho-Jang Kwon²

¹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of Dankook University

²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Dank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 측정을 위한 신뢰도 높은 도구를 찾기 위해 기존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어, 안정적인 측정항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로인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 및 타당성이 높은 항목(애정 6문항, 돌봄 3문항, 관심 9문항, 요구 7문항, 방임 5문항, 학대 7문항 등 총 37개 문항)을 도출하여 전국에 있는 국공립, 사립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설문 수집을 실시하였고, 응답한 1,020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등 각각 총 37개의 측정항목에서 요인의 적재 값(0.6 이하)이 낮게 나타난 문항을 1차적으로 제거하고, 이후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각 항목들 중 동일하게 사용가능한 문항만을 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관심 5문항, 요구 1문항, 방임 1문항, 학대 1문항 등 8문항이 삭제되어 최종 29문항이 측정도구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부)와 어머니(모)의 신뢰도 값은 최소 .857에서 최대 .931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의 검사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성이 모두 확보된 도구임이 규명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existing research trends to find highly reliable tools for measuring inconsistencies in parenting attitudes for adolescent children. We reveal factors that heavily affect reliability and feasibility of these tools and compose stable measurement items. We found a total of 37 items with high reliability and feasibility comprising six questions on affection, three questions on childcare, nine questions on interest, seven questions on demands, five questions on neglect, and seven questions on abuse. We surveyed first to third-year high school students in public and private schools nationwide and carried out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1,020 respondents. Upon analysis, questions were removed if they showed low factor loading (less than 0.6) for the father and mother in each of the 37 measurement items. Only questions that could be used for both the father and mother were extracted to carry ou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ight questions were deleted: five on interest, one on demands, one on neglect, and one on abuse. The final 29 questions were selected for the measurement tool.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used to analyze reliability, which showed high reliability values ranging from .857 to .931 for the father and mother. Therefore, these inspection tools for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were both reliable and feasible.

Keywords : Feasibility,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Measurement tool, Parenting attitude, Reliability

본 논문은 단국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in Choi (Dankook University)

Tel: +82-10-4662-2363 email: choijin21@hanmail.net

Received February 24, 2016

Revised April 6, 2016

Accepted May 12, 2016

Published May 31,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부모양육 방식은 유치원 시기에 분명하게 평가될 수 있고, 고학년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상당히 오랫동안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이는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자녀의 사회성, 지적 능력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1].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사춘기에 부모양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자신의 특권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이때 사춘기에는 심리적인 변화와 육체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난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아이에게 부모 모두 서로 다른 성공지향적인 성취를 강요하는 양육방식을 지향한다. 즉,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시키는 것이지만, 이는 청소년기 아이들이 너무 많은 학업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문제행동으로까지 함께 이어진다. 또한,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간섭, 양육태도의 불일치 등은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조차도 다른 사람 등에게 의지하고 쉽게 포기하려 한다[2].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어머니(모)는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주 양육자로서 역할이 아버지(부)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인한 아버지(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실제로 아버지(부)의 자녀 양육 참여 및 역할 확대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위 사회적 체계에 대한 학습기회를 확대시켜주며, 나아가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부모가 함께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점에서 자녀에게 매우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최근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하나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다루지 않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점차 등장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버지(부)와 어머니(모)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Bac (2005)*와 *Han (2008)*의 연구에서 아버지(부)는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아버지(부)들이 많으나, 어머니(모)는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모)가 많은 것으로 보

고하였다[4],[5],[6]. 또한, *Kang & Kim (2006)*은 아버지(부)보다 어머니(모)가 애정적 태도와 적대적 태도, 그리고 통제적 태도에서 높게 나타났고, 자율적 태도에서는 아버지(부)가 어머니(모)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7]. 그리고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련된 일차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아버지(부) 및 어머니(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규명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Jang & Lee (2007)*는 양육태도는 부모 중 한사람이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부와 모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Chang (2007)*은 부모 각각의 심리적 통제를 개개인의 내향적 요인과 외향적인 성격특성에 의해 자녀의 자기결정성 및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밝혀냈으며, *Park & Kenneth (2008)*, *Park & Lee (2009)*, *Lee(2010)*에서도 아버지(부)는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는 반면, 어머니(모)는 분리불안 적 심리통제를 많이 행하는 것으로 그 차이가 발생했다[8],[9],[10],[11],[12].

이와 같이 자녀는 어머니(모)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아버지(부)의 양육태도에서도 심리 및 정서적 발달까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와 모의 양육태도는 부모통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그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부와 모의 측정항목을 요인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시에 놓고 분석하거나, 또는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시 부모를 구분 없이 하나로 통합한 후,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에 대한 측정항목 및 요인 등은 기존 선행연구마다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게 실시되어 왔다 [13],[14],[15],[16]. 즉,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에 관한 연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를 측정할 수 있는 부모양육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문제가 제한점으로 언급만 되었을 뿐, 매우 간과되었다. 이는 척도의 신뢰도 문제는 연구결과에 대한 제한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를 측정할 기존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및 신뢰도 및 타당성 일반화 검정을 실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따

라서 청소년기 부모양육태도 불일치 측정을 위한 신뢰도 높은 도구를 찾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어, 안정적인 측정항목을 구성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부모양육태도 불일치 연구동향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일관된 태도로, 자녀의 인지 및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특성을 말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자신의 성격 및 정서 상태, 그리고 신념, 가치관 등이 반영된 결과가 나타나며, 특히 청소년 시기의 자녀는 학교 활동이나 학습 등에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녀는 부모의 이해와 존중을 바라며, 부모와 평등하게 소통하고, 그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부모의 도움과 관심을 받기를 바란다. 즉, 자녀는 부모에게 소속감으로 애정의 욕구를 반영 받고자 하는 것이다. 부모 양육에 있어 자녀에 대한 애정 표현은 부모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는데, 아버지(부)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모)는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부)는 자율적 태도에서 자녀에게 애정적 태도를 많이 보이고, 어머니(모)는 통제적인 태도에서 애정적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경제제적인 이유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해 맞벌이 부부 가정의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많아진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보다 자녀의 돌봄 문제가 거론 된다. 예로, 부모의 근로시간과 가구소득에 있어 자녀의 돌봄에서도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부)는 근로시간이 길고, 가구소득이 높을 때, 자녀의 돌봄은 친인척 돌봄 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고, 반면에 어머니(모)는 그와 반대로 부모 돌봄 형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밝혀졌다[17].

부모의 올바른 관심은 자녀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그러나 지나친 관심은 청소년 시기에 자녀의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습관을 빼앗기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부모의 강압과 잘못된 기대는 고학년 때부터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는 부모의 기대가 자녀와 큰 차이를 보일 때, 갈등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자녀의 행동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위 사회적 체계에 대해서 학습할 기회를 확대시켜주며, 나아가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부(아버지)와 모(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및 관심이 자녀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즉, 부(아버지)와 모(어머니) 각각의 심리적 통제가 개개인의 내적요인인 내향적 및 외향적인 성격특성에 의해 자녀의 학업성적과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아버지(부)는 성취지향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는 반면, 모(어머니)는 분리불안적인 심리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순간은 원치 않는 진로를 강요받고,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와 부딪치고 일치하지 않을 때이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들은 부모 품에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성장한 후 성인이 되었을 때, 현실과 부딪히게 된다는 점에서 바로 잡기가 매우 어렵다. 즉,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개인으로 여기고 양육하며, 자녀의 기대치 이상보다 능력을 요구하지 말고, 신뢰를 바탕으로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유능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학업적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교육 요구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과 진로지도 영역에 대해 더 많은 기대심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모양육에 있어 교육 요구도는 부모 성별 간에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18].

청소년기는 부모 방임 여부에 따라 발달주기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데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방임하는 경우 청소년은 자아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19]. 특히, 방임은 사춘기 자녀의 우울과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Jung & Jeon (2010)의 연구에서 아버지(부) 방임은 자녀의 우울을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고, 공격성에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20]. 그리고 어머니(모) 방임은 자녀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우울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이는 부(아버지)와 모(어머니)간 서로 상반되는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어, 방임에 대한 영향요인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학대 원인은 가족구성원 개인의 문제와 가족주변의 환경요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학대를 유발하는 원인들 간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를 갖기 때문에, 학대의 원인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규정짓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의 중요한 원인을 가정환경 및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수준 등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1]. 특히, Kim (2009)은 학대의 유형별 위험정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학대 행위자가 아버지(부)일 때, 어머니(모)보다 신체적 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학대 또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22].

이상과 같이 가정 내에서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 부모 양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의견과 양육 불일치에 의한 심리적 대립을 초래한다. 이는 대부분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양육방법의 적용에서도 일치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말할 수 있다. 즉, 부모 간에 양육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녀는 정서적 균형을 잃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표현하며, 권위에 대한 양면적 태도를 보이는 등, 갈등과 좌절, 그리고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위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애정, 돌봄, 관심, 요구, 방임, 학대 등 총 6개의 요인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그로인한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구성하기 위해 6개의 세부요인을 구성하여 신뢰도 및 타당성 일반화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2.2 부모양육태도 불일치 측정도구 도출

신뢰도 및 타당성 검정은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과 요인의 특성을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 하에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측정도구의 기본요건이다[23]. 즉, 이러한 신뢰도 및 타당성 검정을 실시한 후 얻어진 측정항목은 측정도구를 도출함에 있어 연구결과에 대해 확신성을 줄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부모양육의 측정항목을 재검토하고,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및 타당성이 높은 항목만을 도출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uh et al. (2007)는 부모 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사회불안 및 행동억제 성향, 자기 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표 집단은 고등학생 480명이었다. 연구의 측정도구로 구성된 설문항목은 애정, 간섭(관심), 자율성 등 총 25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중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각각 측정치에서 요인 부하량이 낮게 나타난 문항을 제외하고, 애정 9개 문항, 자율성 7개 문항, 간섭 3개 문항 등 19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Ju (2009)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 불일치와 자녀의 문제행동 및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표 집단은 초등학교 703명이었다. 연구의 측정도구로 구성된 설문항목은 애정 10문항, 간섭(관심) 10문항 등 총 20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간섭(관심)에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6문항을 삭제하여 총 14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되었다[24].

Shin & You (2010)는 부모 간 양육일치도와 아동기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및 사회성 간의 관계된 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표 집단은 초등학교 356명이었다. 연구의 측정도구로 구성된 설문항목은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 성취기대 등 총 33개 문항이 사용되었다[25]. 신뢰도는 각 영역별로 .88, .89, .87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그리고 Noh & Song (2012)은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와 아동의 우울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표 집단은 초등학교 548명이었다. 연구의 측정도구에 사용한 설문 측정항목은 방임적 양육태도 요인인 적대적, 거부적, 심리적 태도 등 총 18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각각 신뢰도 값은 최소 .64 이상으로 나타났다.

Lee & Kim (2014)는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와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표 집단은 중·고등학교 342명이었다. 연구의 측정도구에 사용한 설문 측정항목은 애정 5문항, 감독 4문항, 합리적 설명(돌봄) 4문항, 학대 방치 5문항, 비밀관성 2문항 등 총 2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는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각각

최소 .603 이상으로 나타났고, 타당성 분석에서도 20개 측정항목 모두 최소 0.589 이상 적재 값을 나타나, 안정적인 신뢰도 및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3. 연구 방법

3.1 요인의 측정항목

이상과 같이 앞에서 살펴 본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에 대한 연구동향 및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Parker (1979)가 개발한 척도를 기반으로 Huh (2004)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기초로 활용하였다

[26],[27]. 이후, Suh et al. (2007), Ju (2009), Shin & You (2010), Noh & Song (2012), Lee & Kim (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alpha=0.6$ 이상)와 타당성(적재 값=0.6 이상)이 검정된 애정 6문항, 돌봄 3문항, 관심 9문항, 요구 7문항, 방임 5문항, 학대 7문항 등 총 37개 문항을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Table1].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기간은 2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설문 대상은 전국에 있는 국공립, 사립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3학년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설문배부는 각 지역별, 학년별, 학교유형별로 할당하여 고루 분포될

Table 1. Factor Analysis of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Factor Name	Measured Item	
FAC. 1 Affection	Affection 1	Says he likes me.
	Affection 2	Enjoys time spent with me.
	Affection 3	Encourages me when I am down.
	Affection 4	Compliments me.
	Affection 5	Feels proud of me.
	Affection 6	Respects my opinions.
FAC. 2 Care	Care 1	Spoke to me warmly and with care.
	Care 2	Helped me as much as I wanted.
	Care 3	Tried to understand my problems and concerns.
FAC. 3 Interest	Interest 1	Nags about my personal life.
	Interest 2	Tells me what to do and not to do even for the smallest things.
	Interest 3	Nags about personal things that I should do on my own.
	Interest 4	Frequently does not let me do what I want.
	Interest 5	Worries a lot so i cannot go to places I want to.
	Interest 6	Feels concerned and does not let me do what other kids do.
	Interest 7	I wished that he would worry less about me.
	Interest 8	Interferes with me making friends.
	Interest 9	They do not interfere with my behavior.
FAC. 4 Demands	Demands 1	Stresses that I must be better than others in everything.
	Demands 2	Has expectations that exceed my abilities.
	Demands 3	I have been told that I must become the best.
	Demands 4	I felt burdened because my parent's expectations are higher than my abilities.
	Demands 5	He is more passionate about my studies than anything else about me.
	Demands 6	He emphasizes that whatever I do, I must always win.
	Demands 7	Says that you don't do that
FAC. 5 Neglect	Neglect 1	His work outside is more important than me.
	Neglect 2	He is not interested in me so I am not given compliments or scolded.
	Neglect 3	He is not interested in what kind of thoughts I have.
	Neglect 4	He was not there when I needed him.
	Neglect 5	Did not take me to the hospital when I was sick.
FAC. 6 Abuse	Abuse 1	I am punished more than necessary on my action.
	Abuse 2	I would be hit whenever I did something wrong.
	Abuse 3	I've been hit very hard needing treatment even for a small mistake.
	Abuse 4	When mad, he would pick up anything near by and hit me severely.
	Abuse 5	I always have bruises and wounds on my body because I am hit hard.
	Abuse 6	I would be hit if I don't follow my parent's opinions.
	Abuse 7	I was regularly hit without reason.

수 있도록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각 학교에 설문 내용과 연구 목적 등을 기술한 안내문을 사전에 보냈으며, 이후 설문을 배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다. 따라서 설문지는 총 59개 학교에 1,200부의 설문을 배부하였으나, 회수는 40개 학교에서 1,072명(89.3%)의 학생이 조사에 응하였다. 이 중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2부를 제외한 1,020부(95.1%)를 본 연구의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남학생이 526명(51.6%)으로 여학생의 494명(48.4%)보다 약간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이 352명(34.5%), 2학년이 328명(32.2%), 3학년이 340명(33.3%)으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624명(6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성화고 304명(29.8%), 자율형 사립 및 공립고 54명(5.3%), 특목고 38명(3.7%)의 분포를 보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이 320명(31.4%)이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광역시와 도에 거주하는 학생이 700명(68.6%)이었다.

4. 실증 분석

4.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에 대한 선행연구를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Father					Mothe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Accumulated %	Reliability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Accumulated %	Reliability
Affection4	.852	4.947	17.237	.926	Affection4	.841	5.075	17.500	.931
Affection3	.839				Affection2	.833			
Affection5	.813				Affection3	.824			
Affection1	.808				Affection5	.824			
Affection2	.800				Affection1	.817			
Affection6	.739				Affection6	.758			
Abuse5	.876	4.515	32.901	.906	Abuse5	.882	4.589	33.323	.912
Abuse3	.872				Abuse3	.880			
Abuse6	.836				Abuse7	.840			
Abuse7	.822				Abuse4	.830			
Abuse4	.803				Abuse6	.823			
Abuse2	.663				Abuse2	.640			
Demands2	.834	4.120	46.824	.894	Demands2	.820	3.999	47.112	.891
Demands3	.810				Demands3	.800			
Demands4	.789				Demands4	.790			
Demands1	.767				Demands1	.773			
Demands5	.751				Demands5	.743			
Demands6	.674				Demands6	.685			
Interest5	.843	2.825	56.612	.862	Neglect2	.826	2.866	56.993	.879
Interest6	.816				Neglect3	.762			
Interest7	.792				Neglect1	.722			
Interest4	.677				Neglect5	.678			
Neglect2	.773	2.665	66.175	.866	Interest5	.851	2.827	66.742	.857
Neglect3	.748				Interest6	.830			
Neglect1	.689				Interest7	.792			
Neglect5	.641				Interest4	.670			
Care3	.767	2.202	73.439	.907	Care2	.774	2.044	73.790	.909
Care2	.764				Care3	.760			
Care1	.752				Care1	.713			

Note) number of factors: order of size(extract only those with loading factor)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01	02	03	04	05	06
01 Affection	1					
02 Care	.677	1				
03 Interest	-.233	-.237	1			
04 Demands	-.266	-.247	.500	1		
05 Neglect	-.577	-.560	.301	.350	1	
06 Abuse	-.298	-.337	.328	.309	.468	1
Mean	4.08	3.93	2.26	2.20	1.59	1.37
standard deviation	.78	.84	.98	.87	.69	.59

바탕으로 도출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고, 타당성 검정은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Varimax 방식(직각 회전)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등 각각 총 37개의 측정항목에서 요인의 적재 값(0.6 이하)이 낮게 나타난 문항을 1차적으로 제거하고, 이후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각 항목들 중 동일하게 사용가능 한 문항만을 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심 5문항, 요구 1문항, 방임 1문항, 학대 1문항 등 8문항이 삭제되어 최종 29문항이 측정도구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부)의 신뢰도 값은 최소 .862(방임)이고, 최대 .926(애정)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모)의 신뢰도 값은 최소 .857(관심)이고, 최대 .931(애정)로 나타나, 아버지(부)와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요인의 측정항목에 관하여 신뢰도 및 타당성은 모두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Table2].

4.2 요인 간의 상관분석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정에서 확보된 하위요인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애정과 돌봄($r=.677$), 애정과 방임($r=-.557$), 돌봄과 방임($r=-.560$), 관심과 요구($r=.500$)가 상관계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Table3].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를 측정한 기존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및 신뢰도 및 타당성 일반화 검정을 실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 측정을 위한 신뢰도 높은 도구를 찾기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어, 안정적인 측정항목을 구성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부모양육의 측정항목을 재검토하고,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및 타당성이 높은 항목만을 도출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로인한 Suh et al. (2007), Ju (2009), Shin & You (2010), Noh & Song (2012), Lee & Kim (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alpha=0.6$ 이상)와 타당성(적재 값=0.6 이상)이 검정된 애정 6문항, 돌봄 3문항, 관심 9문항, 요구 7문항, 방임 5문항, 학대 7문항 등 총 37개 문항을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국공립, 사립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 수집을 실시하였고, 응답한 1,020명을 통계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등 각각 총 37개의 측정항목에서 요인의 적재 값(0.6 이하)이 낮게 나타난 문항을 1차적으로 제거하고, 이후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각 항목들 중 동일하게 사용가능 한 문항만을 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심 5문항, 요구 1문항, 방임 1문항, 학대 1문항 등 8문항이 삭제되어, 최종 29문항이 측정도구로 선정되었다.

둘째,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부)의 신뢰도 값은 .862~.926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모)의 신뢰도 값도 .857~.931로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의 검사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성이 모두 확보된 도구임이 규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건설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에 관한 연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Lee & Kim(2014), Suh(2012)는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를 측정할 수 있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문제가 그동안 제한점으로 언급되었고, 매우 간과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신뢰도 및 타당성이 높은 검사 도구를 도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현대가족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한 인적 자원 및 연계가 부족할 수 있다. 이는 부모중심의 현대가족은 갈등 및 정서적 긴장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과잉보호나 과잉 통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부모도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 시키며,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검사 도구를 바탕으로, 부모 간 양육태도 불일치를 미연에 방지 및 최소화하고, 자녀를 안정적인 양육을 시키는데 있어 가정 및 학교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수의 건설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를 검정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를 도출하였지만, 연구의 표집단이 고등학생으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점이다. 따라서 본 검사 도구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표집단을 수집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측정항목을 함께 검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최근 부모의 양육방식이 불일치하거나,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휴대전화 및 IT기기의 의존도가 높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28]. 따라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및 IT기기의 중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양육 및 불일치에 대한 선행요인을 도출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한 후, 신뢰도와 타당성 검정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

- [1] Lee. J. S., Kim. J. H., "The impact of the discrepancy in the parent's attitude to wards nurturing on the perceived self-efficacy and problematic behavior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6(3), pp.207-235, 2014.
- [2] Lee. E. T., Lee. E. K.,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a guilty",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0(1), pp. 55-70, 2012.
- [3] Noh. J. H., Song, H. J., "Influence of disagreement i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in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Vol.4(1). pp. 1-15, 2012.
- [4] Bae. M. J., "Parent's rearing attitude, consistency in rearing attitude styles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eoul: Korea., 2005.
- [5] Seo. M. K., "A comparative study on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s self-esteem perceived delinquent and normal adolescents", *Master's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Jeollabuk-do Province: Korea, 2004.
- [6] Han. J. S., "Differences in children's self-concept according to the rearing attitude consistency between parents",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eoul: Korea, 2008
- [7] Kang. E. J., Kim, Y. J., "The relationship between an parent's attitude of bringing up children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Vol.10(4), pp. 113-133, 2006.
- [8] Jang, M. G., Lee, E. G., "Study on the effect of need for internet use and parent related variables on game addiction", *Korean Counselling and Psychological Therapy Society Journal*, Vol.19(4), pp. 1125-1138.
- [9] Chang. K. M., "The influence of children's perceived paternal/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ra-extraversion characteristics on their self-determination and school achievement",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20(1), pp. 165-179, 2007.
- [10] Lee. Y. G., "The effect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depressive disposition and depression on adolescent's self-esteem: Exploration in accordance with status of adolescent's self identify",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eoul: Korea, 2010.
- [11] Park. S. Y., Kenneth. H. R., "Toddler's gender and temperament by maternal stress as predictors mother's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9(2), pp. 109-124, 2008.
- [12] Park. S. Y., Lee. Y. G., "Domain-specific asse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 in parent's of Korean adolescent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0(2), pp. 211-229, 2009.
- [13] Jung. K. A., Kim. B. W., "The differences of the ego-resilience and disagreement in parent's rear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2), pp. 299-308, 2015.

[14] Noh. J. H., Song. H. J., "Influence of disagreement i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in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Vol.4(1), pp. 1-25, 2012.

[15] Suh. K. H., You. J. M., Choi. S. H., "The influence of child rearing disagreement on social anxiety of high school students: Focus on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BIS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9(2), pp. 255-272, 2007.

[16] Suh. K. H.,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 child rearing disagreement and social anxiety among children in early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1), pp. 207-226, 2012.

[17] Noh. H. J., "The arrangement of de-familialization and familialism by class", Social Welfare Policy, Vol.41(3), pp. 213-238, 2014.
DOI: <http://dx.doi.org/10.15855/swp.2014.41.3.213>

[18] Youn. E. H.,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the needs for parent education with a focus on parents of adolescents", Master's Disser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Korea, 2013.

[19] Cho. O. S., Paik. J. A.,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on adolescents's sexual-materials addiction in the times of converg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4), pp. 349-356, 2015.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5.13.4.349>

[20] Jung. Y. S., Jeon. J. S., "Analysis of the pathway for variables effecting on the aggression in children of immigrant families: Parental negligence. peer relationship.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depression", Family and Culture, Vol.22(3), pp. 73-96, 2010.

[21] Park. H. S., Park. J. M., & Kim. J. E.,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reciprocal causal relations between child abuse and aggression: Using full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by poverty statu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29, pp. 1-24, 2014.

[22] Kim. J. M.,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risk level by the types of child abuse",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eoul: Korea, 2009.

[23] Shin. E. K., "Analyses about trends of measurement and reliability generalization of tools of learning transfer: Centered on articles published on Korean journals between 1996-2013",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16(4), pp. 51-86, 2014.

[24] Ju. E. J.,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hild rearing disagreement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Master's Dissertation, Kyungnam University Graduate, Gyeongsangnam-do Province: Korea, 2009.

[25] Shin. S. S. & You. Y. D., "The effects of the quality and consistency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the emotional and social maladjustments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5(4), pp.

93-113, 2010.

[26] Parker. G.,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35(6), pp. 555-560, 1979.
DOI: <http://dx.doi.org/10.1192/bjp.135.6.555>

[27] Huh. M. Y.,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2(2), pp. 170-189, 2004.

[28] Hong. Y. J., Yi. S. H., Lee. S. H., & Cho. H. R., "The relationships among early adolesc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practices trajectories of mobile phone dependency and self regulated learning: With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6(6), pp. 165-188, 2015.
DOI: <http://dx.doi.org/10.5723/KJCS.2015.36.6.165>

최 진 (Jin Choi)

[정회원]



- 2006년 8월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 석사)
- 2007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복지학

권 호 장 (Ho-Jang Kwon)

[정회원]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 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건학, 예방의학